

특별기획

정읍시, 7월 22일까지 경제총조사

정읍시가 통계법 제3조(총조사 실시), 제17조(지정 통계 제1017호)에 따라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국가 주요 정책과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을 통해 산업의 생산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사요원의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부터 27일까지 50여명의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소강당에서 총조사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사는 기본이 되는 통계지표를 확보, 각종 표본 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보건소, 미취학아동 구강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제공을 통해 태도와 행동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특히, 불소도포 시술의 경우 충치 세균에 대한 내산성을 높임으로써 충치예방(40~70%) 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이 시술은 치아를 강하게 하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릴 때 습관이 평생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구강검진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도움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교월동, 태극기 게양 홍보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 지난 27일 다가오는 제17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태극기(弔旗)를 게양할 수 있도록 직원과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거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홍보활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펼쳐졌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향교일원에서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현충일 조기(弔旗)게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태극기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태극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계국은 5월에 피어 7월까지 볼 수 있고, '순진'과 '평화', '민사를 인내한다'는 꽃말을 갖고 있다.

정읍천 황금빛 금계국 '활짝'

죽림교에서 샘골다리 450m 구간 눈부신 장관 이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의 오월 유휴이 화려하다.

특히 죽림교에서 샘골다리 450m 구간 하얀 눈처럼 활짝 핀 샤프스타 데이지(Shasta daisy)와 황금빛 금계국이 눈부시다. 이들 꽃들이 오월의 맑고 깨끗한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나들이객들과 연인들이 찾아 즐거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무리를 지어 피어 있는 샤프스타 데이지는 '샤프스타'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의 플라워와 동양의 섬 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종이다. 5월에 피어 7월까지 볼 수 있고, '순진'과 '평

화', '민사를 인내한다'는 꽃말을 갖고 있다.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가진 금계국은 미국 코스모스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꼽힌다. 눈부신 황금빛 자태는 8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자연친화형의 아름다운 하천이자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모두 4억17천360원의 샤프스타 데이지와 금계국을 심었다. 그간 비료주기와 물주기 등 꾸준하고 정성을 다해 가꾼 결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것. 시는 일찌감치 시가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읍천을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정읍천 가꾸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연중 잡초 제거와 쓰레기 청소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정읍천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읍천의 수질은 1급수를 자랑하며, 아름다운 형태의 야랑교와 천의 풍광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도 갖춰져 있다. 매년 봄이면 상동~연지동 5km 구간에 1,200여 그루의 벚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는데 최근 정읍구경(井邑九景)으로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공무원, 새만금2호방조제 걷기행사

새만금33센터에서 가력배수갑문까지 9.9km 걸으며 소통과 화합

김제시는 지난 28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원구기후련의 일환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9.9km 걷기행사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농촌지원과, 봉남면·신봉동 주민센터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2호방조제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새만금 33센터에서 가력배수갑문까지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 9.9km를 걸으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동서2축 간선도로와 방수제 및 신항만 건설이 한창인 새만금2호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김제시 관할 결정이후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본격

적인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2호방조제를 걸으며 새만금의 변화와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현장에 직접 와보니 김제시가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 도시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업무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새만금 시대를 맞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 경제중심도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부서간 협업과 업무능력 배양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일행 40여명은 전국 마을공동체 사업의 1번지라 불리는 전남 광주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까망이 작은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김제 여성친화 시민 서포터즈단

광주공동체 활성화 사례 현장 견학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 사례 등 배워

김제시가 민관협력의 여성친화도시 성공적인 정착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체감도 높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여성친화 정책 발굴과 시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일행 40여명은 지난 27일 전국 마을공동체 사업의 1번지라 불리는 전남 광주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까망이 작은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 사례에 대해 배우고 듣고 비교견학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산공동체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

해 주고 있는 매개체이며,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윤난실 센터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응원과 재미난 살림살이를 구상할 뿐 아니라 교육지원도 하고 있고, 협동일터 가꾸기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사례별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제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단은 2012년에 처음 구성된 이후, 2기차를 맞고 있으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2년 연속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대형 공모사업 등 31건 선정 국·도비 414억원 달해

부안군이 2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원 확보로 지역발전의 탄력이 붙은 가운데 국가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특히 군이 내년도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도비 414억 원을 확보하면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사업' 111억 원과 환경부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28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부안

유유동 양잠매가 육성사업' 15억 원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합하면 총 31건으로 확보된 국도비 414억 원에 달했다.

또 공공실버주택사업은 공공실버주택 신축비 100억 원 및 3년 간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며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은 총사업비 384억원(국비 289억원,

군비 115억원)을 투입해 소재지 침수 지역에 우수관로개량 5.1km와 하수 저류시설 5만2800㎡, 빗 물받이 500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노점홍 부군수와 전 직원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설득하는 등 지역발전의 역원을 담은 발품을 팔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 Chidori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